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 여수서 열린다

8월 9~1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73개국 3000여명 참가
지구촌 곳곳 봉사활동 성과 공유하는 국제교류 친선 한마당

여수출신 문상봉 국제총재 취임

세계적인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여수에서 열린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가 다음달 9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다.

여수세계대회는 'Yes, We Can Change!' (변화로 새로워지다)를 주제로 4일간 진행되며, 미국·캐나다·덴마크·인도 등 세계 73개 국가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다.

세계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수행해온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친교와 우정을 나누면서 와이즈멘 정신을 확산하는 국제교류 친선 한마당이다.

세계대회는 2년 단위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서울, 2006년 부산에 이어 여수에서 세 번째다. 본대회에 앞서 2~3일에는 IEO(국제 총재·사무총장) 국제회의, 4~8일에는 ICM(지역 대표) 국제회의, 6~12일에는 세계 와이즈유스대회가 함께 열린다.

개회식은 와이즈멘기 입장을 시작으로 축출발, 성경퍼기, 개회선언, 기수단 입장, 와이즈멘노래, 환영사, 대회사, 축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여수 출신 문상봉 국제총재가 취임한다.

지역사회봉사, YMCA 파트너십, 국제의료봉사 등 6개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며, 포럼도 개최한다.

도출 김용욱, 해민 스님, 조승연 작가 등 명사 초청 강연과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 뮤직페스티벌도 문화공연도 펼친다.

특히, 여수대회에서는 새로운 와이즈멘 출발을 선언한다. 새로운 와이즈멘은 새 희망·새 사람·새 미션을 의미하며,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다.

문상봉 국제와이즈멘 국제총재는 "여수대회는 국제청소년대회와 국제회의가 함께 열려 역대 최대 규모"라며 "100년 역사를 앞에 두고 와이즈멘의 새로운 활동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수백억원대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에 이어 내년 세계한상대회도 여수에서

열린다"며 "국제해양관광 도시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와이즈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봉사하고 YMCA를 돕는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고자 1922년 창립했다.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73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봉사단체이며, 유엔 NGO단체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빈민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그린닥터스' 등 해외봉사와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식. <여수 세계대회 준비위 제공>

김진표·송영길·이해찬 의원 민주당 대표 경선 컷오프 통과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로 김진표·송영길·이해찬 의원(이상 기호순)이 나서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 후보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예비경선 투표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92%)이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 앞선 실시한 정경당에서 김진표 후보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갈 경제당대표로 김진표가 적임자"라며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 "2020년 총선은 경제 총선"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평화로 전진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

겠다"며 "한반도 신평화지도 구상을 이끌 후보"라고 역설했다. 이어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당 대표 줄을 잘못 썼다"고 지역위원장에게 잘리는 일 없도록 비겁한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후보는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정·청 회의를 강화해 국정 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으로 정무적·사적인 공천이 안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 전당대회(전당대회)를 한다. 이날 당은 최고위원 경선도 치른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예비경선 없이 8명이 바로 본선을 치른다. 최고위원에는 설훈(4선), 유승희(3선), 박광온·남인순(이상 2선), 박정·김해영·박주민(이상 1선) 의원과 황명선 총남 논산시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박지경 기자 jpkpark@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2기 내각 첫 인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사진) 의원을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 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입양 출신의 이 의원은 전남대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 행정부지사

를 거쳐 2014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19대 국회의원이 됐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였으나 원내 제1당을 지켜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폭염 극성 ... 완도 내만에 고수온 주의보

곳곳 적조·고수온 확대

전남 어가 피해 확산 우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지역 연안 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고수온 주의보 해역이 늘어나고 있다. 당분간 폭염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수온과 적조 확대에 따른 전남지역 어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남 오후 4시를 기해 완도 내만(해남 남상 방파제~완도 당인리~신지도

~조약도~장흥 노력도)에 고수온 주의보를 신규 발령했다. 이 해역의 수온은 최고 28도로 달해 평년보다 4.7도가 높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여수 신월~장흥 회진 해역 수온이 26~29.3도, 해남 화산 해역이 27.5도, 신안 압해~영광 안마도 해역이 28.4~28.9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8일에는 함평 주포항 인근 양식장에서 돌돔 6만5000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고흥 거금도~경남 통영 학림도, 영광 안마도~해남 갈도, 제주 차귀도~우도 해역

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여수 해역에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유해성 적조생물 발생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현재 고흥군 봉래면 염포 중단~경남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동측 중단에 적조주의보가 발령중이다.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에서는 차돌넬라(100~200개체/ml)와 코클로디니움의 혼합해 출현하고 있고,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개도~월호수도에도 적조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당분간 태풍이나 강우 등 폭염을 꺾을 기상 요인이 없어 고수온 상태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식어가에서는 어장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한 초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수온 대응과 관련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을 2310건 가입했고, 차광막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원과 시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했다.

적조 대비를 위해서는 적조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황도 7만5000톤과 전해수 황도살포기 등 공공용 방제장비 19대, 민간 방제장비 4525대 등을 확보해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평주일보”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 확산
-착한 기업·개념 소비자 늘었다 ▶10면
3회를 넘어야 6승 간다
-KIA 한승혁 오늘 삼성전 선발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황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충동 876-17)



www.그린장례식장.com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